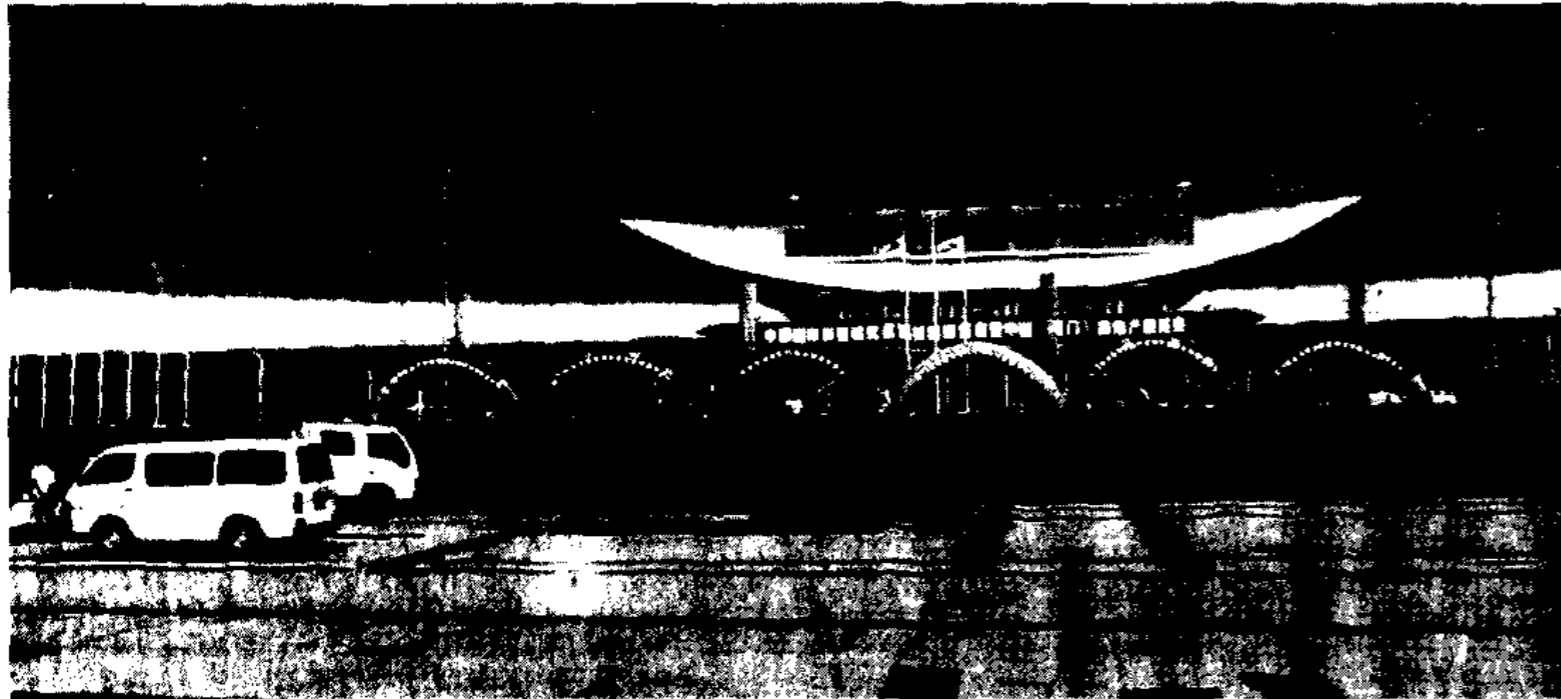


# STONETECH2003 3월 12일부터 4일간 공사특성 따라 입찰방식 정해야

## 제10회 중국국제석재제품 및 석재기술 장비 전시회

## 발주자 재량권 인정하되, 입찰 투명성 전제돼야



변별력 부족이나 극단적인 저가 낙찰 등으로 나타난 현행 입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특성에 따라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 미리 입찰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발주자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발주자에게는 판단에 대한 책임과 윤리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연)은 지난 1월 24일 '다양한 발주방식 적용을 위한 발주제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등 공사금액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발주방식이 무분별한 영평이나 변별력 부족 등 단점과 한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설연은 따라서 정부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발주 단계별 발주방식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이를 근거로 공사특성을 고려해 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1천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영평과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만큼 품질보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연은 발주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대신 발주자의 선택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책임과 윤리의무를 법령상에 명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별로 발주 관련 총괄인자를 지정해 기관장에게 집중돼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분산할 것을 제시했다.

건설연은 또 발주자에 대한 재량권 부여에 앞서 발주자는 발주계획 수립능력은 물론 발주 방식 및 시설별 특성을 파악해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연은 발주과정을 3단계로 나눠 △발주단계에서 설계 시공의 분리 또는 턴키발주의 결정 △입찰단계에서 세부 심사기준 결정 △공사비 지불단계에서 단가 계약, 총액입찰계약, 실비정산계약 등을 발주방식으로 제시했다.

### 중국, 이탈리아 독일이은 최대석재소비국으로 부상 200여개업체 참가, 기술·제품 교류의 장으로 발돋움

중국국제석재제품 및 석재기술 장비 전시회(STONETECH2003)가 중국 북경 중국국제전람센터 1호 전람관에서 오는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열린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건축자재산업분회, 중국석재공업협회, 화양국제전람유한공사의 주최 및 주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건축재료공업협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스리랑카 대리석, 화강석 원석 및 판재 가공석 및 관련제품, 도비석, 석조각공예품, 조각석, 인조석, 석재모방제품, 석재 운수기계설비, 각종 석가공기계설비 및 기술, 다이아몬드 공구 연마자재 및 부속품, 석재제품, 석재, 보양과 석화제 및 기술, 석재, 건축기술, 출판물, 과학기술 성과, 무역봉사 기술, 인터넷 기술을 각종 석재관련 산업 업체들이 후원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스펀테크 2003은 중국내 석재업체들이 한자

이러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석재소비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스펀테크 차이나는 매년 1만6천 평방미터의 넓은 전시장에 국내외 2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이번 전시회도 세계적인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석재협회에서는 STONETECH2003에 참관할 석재업체 관련자를 모집한다.

참가단은 전람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석재전시회 및 전람회 참가, 북경 지역의 석산과 석재 가공업체 방문, 대리석·화강석 생산 및 공장 방문, 자금성 및 천안문 광장 관광 등의 일정으로 참가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명과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참가인원을 팩스 (02)2168-4090로 보내거나 전화 (02)2168-4090로 접수할 수 있다.

문의 (02)2168-4090 연락처 제공

### 중국과 합자기업 열에 아홉은 실패한다 독자기업 가거나 경영권, 배상책임 가려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중국인 파트너와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내 한국기업인들이 경고했다.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손꼽히는 김운영(47) 심리스타 시장은 지난 1월 27일 "중국인들과 합자기업을 하면서 몇 차례 재산을 날렸다"고 밝히고 "중국과 합자기업을 해서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심리스타는 중국 동남부 장먼시에 공장이 있는 주방용품 제조업체, 미국과 유럽, 동남아 주요 백화점과 슈퍼마켓에 연간 1천800만 달러 규모의 주방용품을 수출한다. 김시장은 "심지어 일부 대기업들도 중국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변에서 합자기업을 설립한 한국인 사업가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자기업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

그는 합자기업을 추진하는 대신 현지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실력을 갖춘 고문으로 영입하면 독자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측 파트너와 합자기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중국에 관심이 없거나 현지 실정을 잘 몰라서인 경우가 대부분. 그러나 그런 경우 시기를 당하거나 돈을 날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개인사업가 김재현씨는 지난 1990년대 초반 50대 50의 지분율로 중국 '산동성'에 자본금 300만 달러 규모의 화강석 원석 및 가

공관계 업체 해부분석을 설립했다 실패했다. 중국측 파트너가 회사 기안이 겹쳐져 고임금 등을 이유로 한국 직원들의 월급을 요구했고 이후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은 물론 회사명의로 은행대출까지 받아 결국 회사가 법원경매에 넘어갔다.

당시 해부분석의 한국측 회사 관리부장을 지낸 장시현 제이티엔 다년 경영권 확보와 배상책임 규정의 명문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측 경영 책임자와 자금 담당자는 항상 중국에 상주해야 하며 공인회계사를 통해 최소한 6개월마다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합자계약서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주에 아사달 추모비 건립된다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의 조각가로 알려진 아사달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비가 건립된다.

아사달추모비 및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재홍)는 지난 2월 14일 발기대회를 갖고 아사달 추모비와 함께 추모비 건립에 대해 확정지었다.

아사달 추모비 및 추모비 건립은 세계적 석공 아사달을 추앙하면서 경주문화 유산으로 발전시켜 아사달의 장인정신을 이어받는 한편 우리 역사에서 찬란했던 석조문화의 새활기 불피우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현재 경주를 비롯한 중해지역 석재 관련업체 종사자 37명과 학자, 향토사학자를 비롯한 자원위원 80여명이 참여해 아사달추모비 및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난 2월14일 아사달추모비 건립추진위 발족 추모비를 설치 기대를 장만할 부지선정과 디자인 작업을 마친 상태.

전체적으로 단합과 석조문화 계승·발전의 의미를 담은 아사달 추모비(실제 건립한·제작 경석 동우회)는 주기를 알의 형태에서 깊게 강조, 단간지주 형태를 형성하고 높고 낮은 과거와 현재의 석공인을 상징하며 중앙에 아사달 비를 넣음으로써 상징인물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았다.



### 채석지 복구비에치금 크게 올라

채광 채석지에 대한 복구비 예치금이 크게 올라 산림복원 채취업제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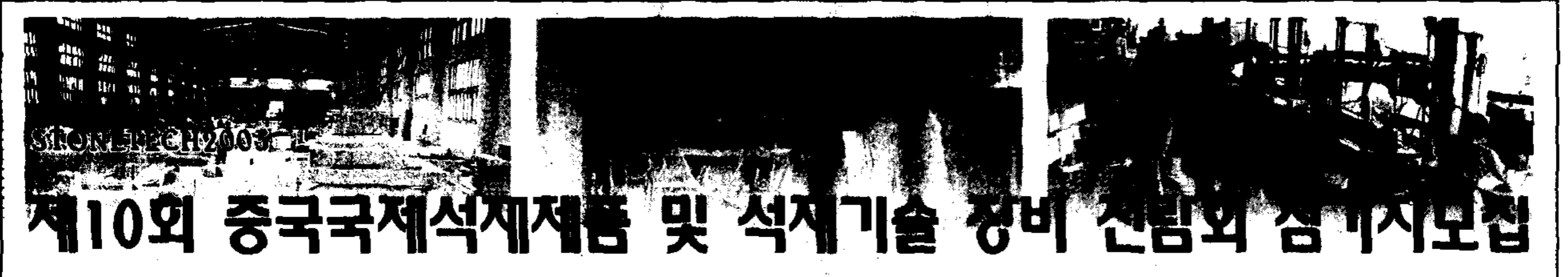
지난 1월25일 산림청이 고시한 '2003년도 복구비 예치기준'에 따르면 산림청에 의해 채광 채취업제들이 부담해야 할 복구비 예치금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41%까지 올랐다. 골프장 건설 등을 위해 황폐환경을 한 지역에 대한 복구비 예치금은 최대 25% 상당 조정됐다.

올해 적용되는 복구비 예치금을 보면 골짜기 채취 등을 위한 채광 채석지 중 경사 15° 미만 지대는 ha당 6천639원14천원으로 결정돼 지난해 5천801만7천원보다 14.95% 올랐다. 이는 지난해 2001년 3천916천원보다 무려 115.72%나 상승조정된 것이다.

15° ~ 30° 미만 지대의 예치금은 지난해 ha당 9천409원16천원보다 무려 41.38%나 오른 1억3천299원17천원, 30° ~ 45° 미만 지대는 지난해 1억2천210원16천원보다 31.51%가 오른 1억6천547천원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예치기준은 지난 2001년과 비교할 때 5° ~ 30° 미만 지대는 경우 94.67%, 30° ~ 45° 미만 지대는 98.31%가 상승한 것이다. 45° 지대는 2억102만4천원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33.97%, 지난해 2001년보다는 98.88% 오른 것이다.

산림청 채광 채석지에 대한 복구비 예치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름으로써 산림복원 채취업제들의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제10회 중국국제석재제품 및 석재기술 장비 전시회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한국석재협회에서는 STONETECH2003에 참관할 석재업체 관련자를 모집합니다.

중국 북경 중국국제전람센터에서 오는 3월 12일부터 3박 4일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으며 중국내 석재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와 독일의 뒤를 이어 세계 최대의 석재소비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2001년 한 해 동안 1억㎡의 석재가 소비되면서 무한한 시장 잠재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람회에도 1만5천여명 이상의 바이어들이 참석,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실재적인 수출·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석재협회에서는 스펀테크 차이나 2003에 참가할 국내 석재관련 업체 관계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참가단은 전람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석재전시회 및 전람회 참가, 북경 지역의 석산과 석재 가공업체 방문, 대리석·화강석 생산 및 공장 방문, 자금성 및 천안문 광장 관광 등의 코스로 바깥형에 참가하게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에서는 업체명과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참가인원을 팩스 (02)2168-4090로 보내거나 전화 (02)2168-4090(담당 명치국 차장)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시회가 될 이번 전람회에 석재업계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참가일정

일지	지역	교통편	시간	내용
3월 11일	인천·부산/북경	CA138	9:15	인천·부산출발/북경도착 대리석·화강석 생산 및 공장 방문
3월 12일	북경	버스	10:10	예제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3월 13일	북경	버스	전일	석산방문 석재가공업체 방문
3월 14일	북경	CA137	21:10	자금성 및 천안문 광장 관광 북경출발/인천·부산도착

※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출발·도착합니다.  
● 참가비 입금계좌 우리은행 212-200290-01-001(예금주 (사)한국석재협회)  
● 참가비 1일당 40만원  
● 신청방법 팩스 (02)2168-4090 / 전화 (02)2168-4090(담당 명치국 차장)  
● 일제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참가인원을 명기해주시요.